

퍼펙트 論述

올바른 가치관 정립 왜 필요한가

가치관에 대한 이해

1. 가치관이란?

예를 들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다고 하자. 만약 평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음담(誼談)이나 욕설, 과장 광고,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비난 등에 반감이 있어 인터넷 이용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찬성할 것이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가 오히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라는 인터넷 문화의 핵심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에 반대할 여지가 크다. 이 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되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자는 입장도 가능할 것이다. 이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는 가치관(價値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관이란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때 '어떤 대상'은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를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현상이나 의식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다.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까지 '평가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 가치관이 그러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도 결국 가치관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다. 비록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 외적인 환경이 존재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살리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의 몫이고, 그러한 결단은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내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도덕과 윤리가 비종 있게 다루어지는 것 역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다.

2. 가치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선 가치관은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판단이 특정한 행위까지 이어졌을 경우 결국 행위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예컨대, 얼마 전 벌어졌던 천성산 터널 개통에 반대하여 단식투쟁을 한 지을 스님의 환경 보호론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졌다고 하자.

이때 찬성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심각한 환경 현실일 수도, 간접적으로 취득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이나 사상이었을 수도, 혹은 지을 스님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대한 감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근거가 아무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존재할 수는 없다. 근거로 작용했던 각각의 경험, 이론이나 사상, 희생 정신이 과연 '올은지' 그렇지,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스스로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이러한 판단의 과정에 가치관이 개입하여 '올다, 받아들이자'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가치관은 대상에 대한 판단 및 그로 말미암은 행위를 동기 지우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수많은 판단과 행위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가치관은 결국 개인의 삶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까지 결정한다 할 수 있다.

소극적이고 속명론적인 소극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에 쉽게 체념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어려움의 원인을 신중히 분석하고 극복하려는 태도를 가질 것이다. 부(富)와 권력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봉사하는 삶이나 지적인 호기심을 성취하는 데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각 가진 바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측면에서의 가치관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한 사회의 가치관이 하나일 수는 없다. 한 사회의 가치관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가지는 가치관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개인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한 사회의 가치관이 개인 수만큼 다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개인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다수 존재하며, 그것들이 모여 사회의 일반적·보편적인 가치관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에만큼은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한 일전 승리의 당위성'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보편적인 가치관이 된다. 그런데 왜 이러한 가치관을 이겼을 게? 아무래도 과거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경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오만한 태도 등이 크게 좌우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일전 승리의 당위성'은 다른 국가, 다른 문화에 비해 우리 사회가 가지는 독특한 가치관이 된다. 결국, 한 사회의 가치관은 그 사회와 다른 사회를 구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 된다.

또한, 가치관은 구성원의 사회 활동을 규율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아랫사람이 먼저 식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직까지 효(孝) 사상이 우



스포츠 경기에서 '한일전 승리의 당위성'은 다른 국가, 다른 문화에 비해 우리 사회의 독특한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에 어긋나지 않게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및 여가 선용 등 다양한 활동에서도 한 사회의 구성원은 그 사회의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치관은 그 사회를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가치관으로 형성된 사회주의 국가는 오늘날 찾기 힘들다. 굳이 '소말과 고모라'를 들지 않더라도 퇴폐와 향락으로 몰든 사회는 근로의 가치와 건전한 경제관이 뒷받침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양적 성장만을 중시했던 우리 사회 역시 빈부 격차, 정경 유착, 각종 경제 범죄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존속·발전은 그 사회가 얼마나 올바른 가치관이 있는가에 좌우된다.

실전 연습

다음 제시문을 읽고 (나)에서 제기하는 인물 유형에 근거하여 (가)의 등장인물 '조르바'와 그의 주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가) "두목, 이렇게 말한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마소. 당신 대가리는 아무리 봐도 아직 여문 것 같지 않소. 올래 벗어시오?" "서르나셨이요." "그럼 앞으로도 어울린 걸요." 그러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 일격에 얼떨떨했다. "조르바, 당신은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내가 반격했다. "두목, 화내지 마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소. 내가 사람을 믿는다면, 하느님도 믿고 악마도 믿을 거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두목,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뒤쪽박죽이 되고 나는 혼란에 빠지고 말아요."

그는 말하다 말고 베레모를 벗고 머리를 긁어 대다가 다 뜯어낼 듯이 수염을 잡아당겼다. 뭔가 할 말이 있는데도 자제하는 눈치였다. 그는 눈 한 귀뚱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한동안 그렇게 보고 있던 그는 말을 하기로 작정했는지 내뿜듯이 말했다. "두목, 인간이란 짐승이예요." 단장으로 자갈을 후려치며 그가 말을 이었다.

".....짐승이라도 엄청난 짐승이예요. 그런데도 두목은 이걸 알지 못해요. 당신에게는 이 인간이라는 것, 세상사라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모양인데..... 내게 물어봐요! 짐승이라고 대담하게도 짐승을 사냥해 대하면, 당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요. 친절하게 대하면 눈이라도 뽀아 갈 거요. 두목, 거리를 뒀어요! 놀음 간담이를 키우지 말아요. 우리는 평등하다, 우리에게 똑같은 권리가 있다. 이따위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에게 달려들어 당신 권리가 빠앗고 당신 빵을 훔치고 굶어 죽게 할 거요. 두목, 좋은 걸 다 걸고 충고하건대, 거리를 뒀어요!" "하지만, 조르바, 당신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대들었다.

"안 믿지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몇 번이나 얘기해아 알아들었소? 나는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오직 조르바만 믿지. 조르바가 난 믿는다! 나이가 어찌 아니요. 나를 거르고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조르바 역시 난 놀음과 마찬가지로 짐승이요! 그러나 내가 조르바를 믿는 건,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아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조르바뿐이기 때문이요. 나머지는 모조리 허깨비들이요. 나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삼아내어요. 나머지가 동방 허깨비지. 내가 죽으면 만사가 죽는 거요. 조르바가 죽으면 세계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질 거요."

"저런 이기주의!" 내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어쩔 수 없어요. 두목,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빵을 먹으면 빵을 따먹어요. 내가 조르바니까 조르바같이 말하는 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르바의 말이 채워져 되어 날아들었다. 강인했기 때문에 그토록 인간을 경멸하면서도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고 일하려는 그를 나는 존경했다. 나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금욕주의자가 되었거나 그들을 가차 깃털로 꾸며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았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

(나) 만장이 몰았다. "공자께서 진(陳)나라에 계실 때에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내 고향의 선비들은 과격하고 단순하고 진취적이어서 초지(初志)를 버리지 못하니.....'라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노나라의 광사(狂士)들을 생각하셨을까요?"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께서는 '중도(中道)를 걷는 사람을 얻어서 사귀지 못한다면, 나는 반드시 과격한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을 택할 것이다. 과격한 사람은 진취적이고 고집 센 사람은 이것만은 하지 않는다는 지조가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를 걷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나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가는 사람을 생각하셨던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과격한 사람(狂者, 狂者) 이인지 감히 여주어 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금강, 증서, 목피 같은 사람들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과격한 사람이다."

"어찌서 그들을 과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의 뜻은 매우 커서 '옛 사람이여, 옛 사람이여!' 하되 평소애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과격한 사람도 얻지 못하게 되면 몰지 못한 사람을 더럽게 여기는 선비를 얻어서 같이 사귀기를 원했던 것이니, 이것이 고집 센 사람(矜者)이다. 이것은 또 그 다음가는 사람이다."



박은경 1318논술연구소 언어논술강사

동영상 강의 www.1318hi.com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대인동상일부동산', '무등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한일지도판매(주)', and '부자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Each ad contains details about properties for sale, rental, and real estate services.